

# 서울 교수의회 “미래창조스쿨은 현실 외면한 허상”

## 혁신위원회 “내년까지 충분히 준비 가능”

### 미래창조스쿨 논쟁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지난 7일 청운관에 ‘존경하는 교수님께’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작성자는 서울캠퍸스 교수의회다.(의장, 유원준 사학 교수) 교수의회는 대자보를 통해 “미래창조스쿨은 답답한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 전술의 일종”이라며 “공간·예산·교수진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수의회는 “허상으로 가득 찬 미래창조스쿨과 거버넌스 개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구성원과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학당국에 촉구했다.

미래창조스쿨은 지난 미래대학리포트 2015에 나타난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서 기존의 취업 및 진로 지원 제도를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구성원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외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돼 구성원 사이에서 논란이 있던 바 있다.

서울 교수의회 의장 유원준 교수는 지난 9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창조스쿨은 허울 좋은 SF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배분·자유 이수 교과, 취업스쿨 교과들,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취업 관련 교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에 기획하고 준비하면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인증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즉 학점 수, 교과목군 등의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교수의회 의장 유원준 교수는 지난 9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창조스쿨은 허울 좋은 SF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래창조스쿨의 취지가 좋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마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뒤려워 면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불과하다”며 “당장 공간, 교수, 일정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원준 교수는 “교강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준비해야 한다”면서 “내년 강의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담당할 과목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떠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학년도 1학기의 1차 희망과목당기는 2015년 12월 20일이었다. 희망과목당기는 학생들 입장에선 강의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수강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며, 학교 측에선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강의 개수와 인원을 정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다. 희망과목당기가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은 강의를 진행할 교강사를 정하고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교재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빠듯하다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 “현실을 외면한 채

###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창조스쿨?

### 계획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혁신위 유정완 사무총장은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3일 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미래창조스쿨은 자체 교수진을 가진 별도의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양한 부서에 흩어지거나 중복된 교과와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완 사무총장은 “기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배분·자유 이수 교과, 취업스쿨 교과들,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취업 관련 교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에 기획하고 준비하면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인증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즉 학점 수, 교과목군 등의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스쿨은 지난 미래대학리포트 2015에 나타난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서 기존의 취업 및 진로 지원 제도를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구성원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외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돼 구성원 사이에서 논란이 있던 바 있다.

### “분산된 관련 교과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 내년 시행 충분히 가능”

또한 유정완 사무총장은 오픈랩 공간에 대해서 “거버넌스와 공간 재조정·재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캠퍸스 경우 학생처, 취업진로지원처, 바로처리실 등의 공간을 재배치해 청운관 1층의 바로처리실 공간 또는 행복기숙사의 1층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캠은 도서관 1층 또는 학생회관 1층 공간을 활용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공정회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 부서



▲ 미래창조스쿨은 학생들의 다양한 삶의 진출 방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행정기능 통합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오픈랩 공간이 골자다. 행정기능은 학생지원처, 취업진로지원처와 창업보육센터 등 학내 유관부서들의 통합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미래창조스쿨이 지정하는 교과들의 이수를 통해 졸업 시에 미래창조스쿨 이수를 인증하는 인증제로 진행한다. 미래창조스쿨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필수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실천프로그램을 듣게 된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래학, 문명론 등의 강좌 수강부터 봉사, 여행, 더 나아가 기업인턴십, 소셜벤처 창업과 같이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에 진출하게끔 구성돼 있다. 오픈랩 공간은 4가지 부스로 구성된다. 창업 인큐베이팅, 취업교육 및 진로상담 지원, 학생활동 및 국제교류 지원, 지역사회와 글로벌 이슈 해결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스쿨 진행상황

- |       |                                |
|-------|--------------------------------|
| 08.03 | 경희대 미래창조스쿨 관련 외부 언론에 보도        |
| 08.08 | 총학 미래창조스쿨 ‘공개질의’               |
| 08.10 | 혁신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08.17 | 총학 ‘공개질의서 답변’과 ‘미래창조스쿨 계획서’ 공개 |
| 09.07 | 서울캠퍸스 교수의회 ‘존경하는 교수님께’ 대자보 게시  |
| 09.08 | 혁신위 ‘대학혁신 학생기획단’ 모집 시작         |

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정완 사무총장은 “오픈랩 공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외에 별도

의 추가 예산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대학혁신 학생기획

단’을 모집하기 시작한 혁신위는 앞으로도 할 일을 많이 남겨두고 있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설문, 총학생회와의 협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및 오픈랩 공간 구체화에 대한 구성원 및 유관부서 협의, 미래창조스쿨을 포함한 혁신 아이디어 수시 공모 등이 그것이다.

유정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모든 사항은 총학생회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스쿨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 교수 등 구성원들의 혼란 속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막아하고 있다. 다만 그 취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혁신위가 약속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따라 구성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미래창조스쿨의 ‘미래’가 주목된다.

### 2016학년도 2학기 KHU 사회진출 지원 5 Steps 프로그램

#### 국제캠퍸스 취업진로지원처

##### 신입생세미나

| 프로그램   | 일정               |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신입생세미나 | 5. 23~5. 25 (1주) | 취업진로지원처 | 사회진출 마인드부여로 착실히 대학생활 지원전공에 대한 조기 이해 | 신입생 전체 |
|        | 11.21~12. 7 (3주) |         |                                     |        |

##### 담임교수제

| 프로그램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담임교수제 (진로상담교수제) | 9월~12월 (학기별 1회) | 지정 교수 (단과대학 및 학과) | 학기별 1회씩 배정된 교수님과 상담 | 미실시자는 수강신청정지 최초 2일 접수가 불가 |

##### 취업스쿨

| 프로그램              | 일정           | 담당  | 주요내용 | 비고 |
|-------------------|--------------|-----|------|----|
| NGO/NPO부문         | 금10/01~11/30 | 한정아 |      |    |
| 건설/플랜트부문          | 목10/01~11/30 | 이택상 |      |    |
| 공기업/공무원/고시부문      | 화10/01~11/30 | 김성환 |      |    |
| 금융부문              | 목10/01~11/30 | 임상연 |      |    |
| 멘토링과 함께하는 커리어 컨설팅 | 월10/01~11/30 | 김양수 |      |    |
| 비영리/생명/화장품부문      | 수08/01~10/30 | 유재호 |      |    |
| 스포츠 마케팅 부문        | 화10/01~11/30 | 이재현 |      |    |
| 외국계 기관분야          | 금10/01~11/30 | 조현현 |      |    |
| 자기개발과 취업전략        | 금12/01~13/30 | 고영재 |      |    |
| 자기발달을 통한 진로설정     | 목12/01~13/30 | 김연희 |      |    |
| 진로·성적성별·진로준비      | 화12/01~13/30 | 장윤정 |      |    |
| 취업설전              | 월10/01~11/30 | 백지연 |      |    |
| 화학/전자재료부문         | 수10/01~11/30 | 임영린 |      |    |

##### 현장연수활동

| 프로그램   | 일정        | 담당 및 문의처 | 주요내용                | 비고          |
|--------|-----------|----------|---------------------|-------------|
| 단기현장연수 | 학기중 or 방학 | 단과대학     | 4주(100시간 이상, 1~3학점) | 전공현장인정표에 의거 |
| 장기현장연수 | 학기중       | 단과대학     | 8주이상~2주(4~15학점)     | 전공 or 자유선택  |
| 채용연계형  | 상시        | 취업진로지원처  | 공채형태로 기업공지          |             |

##### 사회진출 지원 5 Step- 사회진출 Skill 지원프로그램

#### 교육내용

#### 일정

#### 장소

#### 강사/행

#### 주요내용

#### 강사/행

#### 교육내용

#### 일정

#### 장소

#### 강사/행

#### 주요내용

#### 강사/행

#### 비고

#### 비고